

문화전당 2012년 부분 준공

강운태 시장 “상가·도심 재생위해 시민 오가게 할 것”

개관 시기 2013년으로 1년 앞당겨질 수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이르면 오는 2012년 부분 준공될 전망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6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금남지하상가 상인들과 도심 재생을 위해 문화전당 내 5개 건물 중 일부라도 2012년 부분 준공해 시민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지면적 12만75㎡에 지하 4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지는 문화전당은 크게 아시아예술극장,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어린이지식문화

원, 문화창조원 등 5개 건축물과 광장, 도로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옛 전남도청 본관과 옛 전남 지방경찰청 등을 리모델링해 설치되는 민주평화교류원은 단일 건축물로, 예산이 뒷받침되면 2년 내에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민주평화교류원과 나머지 4개 건축물 중 1곳을 포함 2개 건물이 부분적으로 문을 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병훈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4개 건축물은 서로 연계가 돼 있고 그 기능도 상호보완적이어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며 “광주시와 연계해 예산이 원활히 지원되고 민원이 최소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문화전당의 개관 시기도 애초 2014년에서 2013년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 시장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조금이라도 앞당겨 보자고 이야기했으며 유 장관도 이를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화전당은 국제공모를 통해 유구 승씨의 설계안이 확정된 뒤 ▲랜드마크 논란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완공시기가 2010년에서 4년 늦춰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물바다된 여수

1942년 기상 관측 이래 여수의 하루 강우량이 283.5mm로 최고치를 기록한 16일 여수시 율촌면 신산리 앞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DJ 서거 1주기 추모사업 활발

한달 앞두고 자서전 발간·예술제 등 다양한 공식행사와 별개 민간단체도 30여개 행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8월18일)를 앞두고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진다. 서울을 비롯, 정치적 고향인 목포와 생가가 있는 신안 하의도에서 민주화와 민족의 평화 통일에 힘쓴 고인을 기리는 추모 예술제, 추모학술대회, 동상제막식 등 다양한 추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위원회(위원장 김석수 전 국무총리)는 16일 “다음달 10일(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시작으로 18일까지를 추모 기간으로 정해 3대 추모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3대 추모행사는 자서전 출판, 추모문화제, 추모식으로 진행되며 출판기념회는 오는 8월 10일 오후 5시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다.

추모위원회는 또 공식 추모기간인 18일까지 김대중도서관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1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18일에는 현충원에서 추모식이 열린다.

추모위원회와 별도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마을인 신안군 하의

도와 정치적 고향인 목포에서도 다양한 추모행사가 개최된다.

목포시는 오는 8월 11일 박지원 의원을 초청, ‘김대중 리더십 배우기 시민강좌’를 개최하고 목포 시민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서거 1주기 추모음악회’를 열어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의 의미를 되새긴다.

목포시는 또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마치고 서거 3주기(2012년)에 맞춰 건립을 추진중이다.

생가가 있는 하의도에서도 추모 예술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사 정권과 개발독재에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납치, 투옥, 연금 등 정치적 탄압을 겪은 그의 인생 역정을 체험하는 행사도 추진된다.

전남도도 서거 1주기를 맞아 8월 12일 남악신도시 김대중 광

장에서 김대중 동상 제막식을 갖는다. 김대중 광장은 전남도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남북화해와 협력의 뜻을 담기 위해 조성중인 광장으로, 동상 제막식에 맞춰 신안군민들이 헌수한 해당화(100본)가 심어진다.

전남도는 특히 김대중 광장(1만 8200㎡)과 노벨평화상 기념관(1만 3200㎡)에 도민을 비롯해 출향인사들이 헌수한 나무 1만 8000여 그루를 심는다는 계획 아래 다양한 조경수목 440그루를 확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위원회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 추모 기간 동안 추모위 공식 행사와 별개로 민간단체 중심으로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30여개의 추모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F1 성공기원 100만 서명운동 돌입

D-100일... 주말·휴일 카퍼레이드·공연 등 다채

오는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D-100일을 맞아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출범식이 열렸다. 전남도와 F1 대회조직위원회는 이번 주말과 휴일 대회 분위기를 띄우는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F1 대회조직위원회는 16일 무안군 남악 신도시 전남도청에서 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범국민 100만인 서명운동’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준영 F1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여해 100일 남은 F1대회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대회 조직위는 F1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하고 전국

을 돌며 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조직위는 출범식을 마친 뒤 인근 목포 하당신도시에서 F1호텔과 F1레스토랑으로 지정된 곳을 돌며 현판식을 하고 준비상태를 점검했다.

조직위는 또 F1 대회 D-100일을 맞아 17일 광주와 목포에서 차량전시와 카퍼레이드, 축하공연 등을 개최하고 18일에는 목포 옥암지구 서해지방경찰청 앞 도로에서 튜닝카 250여대가 참여하는 드래그 레이싱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17일 낮 12시부터 광주시 동구 금남로를 시작으로 목포까지 펼쳐지는 대규모 카퍼레이드에는 슈퍼카 5대를 비롯, 퍼레이드 차량 30대가 참여해 금남로~신세계백화점~백운광장~광주대~나주 공설운동장~대불대~영산강하구연~목포버스터미널~평화광장까지 돌며 대회 개최를 알린다.

또 18일에는 오전 9시20분부터 목포 서해지방경찰청 앞 도로에서 튜닝 차량 250대가 드래그 레이싱을 펼치고 오후 1시에는 연예인 이세창 등의 팬사인회도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목포~부산 열차운행 재개 검토

지난 5일 이후 중단됐던 목포~부산간 열차 운행이 재개될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6일 “목포시와 의회에서 ‘목포~부산 노선 운행 재개 건의서’가 들어와 지난 5일 승객 감소로 중단됐던 목포~부산간 열차 운행 재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철도공사측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승객 수요가 많지 않은 만큼 운행 횟수 등에 대해서는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축소 운영을 시사했다.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열차 운행 중단으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찾는 영남권 관광객 수송 대책에 큰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컸던 만큼 운행 재개는 대회 성공 개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목포시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5일 정중득 목포시장과 한국철도공사 고위 관계자의 통화에서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철도노선의 운행재개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도운영 재개 움직임을 전했다.

/김지을-김호 기자 dok2000@

283mm

여수 시간당 50mm 물폭탄 내일부터 다시 불볕더위

지역	강우량	지역	강우량
여수	283.5	보성	89.0
광양	115.5	구례	88.5
화순	99.5	광주	67.0
고흥	96.5	진도	58.5
순천	89.5	담양	54.0
장흥	89.0	강진	52.0

16일 오전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남해안 지역에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일부에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지역별 강우량은 한때 호우경보가 발효됐던 여수가 16일 오후 5시 현재 283.5mm로 가장 많았고, ▲광양 115.5mm ▲화순 99.5mm ▲고흥 96.5mm ▲순천 89.5mm ▲장흥·보성 89.0mm 등이었다. <관련기사 3면>

한편 광주·전남지역은 17일 오후 장맛비가 갠 뒤 휴일인 18일부터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지역은 17일 오전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후 18일부터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 되겠다”고 예보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무등빌딩 임대

무등산이 내려다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최상의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있어서 **법무적 권리를 제공하며**
 지역을 인식함으로써 **교육이 편리한 지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건물내에 **주차시설이 임대료에 포함**
 또 층마다 **환기, 공극의 냉 난방시설**이 되어있어 편리하고 쾌적합니다.

문의: 임미문의 0621222-0527